■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37-460.
http://doi.org/10.17948/kcs.2023..100.437

현순의 공연 관련 활동 내용과 의의

최희영(崔喜英)*

목 차

1. 머리말
2.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
3.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현순(玄楯, 1878~1968)이 하와이에 거주할 동안 참여했던 공연 관련 활동을 태평양 전쟁 발발 전후로 나뉘어 고찰하였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 현순은 1920년대부터 정착된 호놀룰루 다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한민족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공연을 제작하는 데에 기여하고 그의 아들 피터 현의 감독 작업을 지지했다. 현순이 영어 각색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혼식 영어 각색 연극은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한민족을 대표하여 무대에 올려진 공연물이었다. 혹부리영감 설화를 영어로 각색한 작품 역시 결혼식 각색 연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국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으로 연극계 전문가인 피터 현이 감독으로 참여하였기에 완성도 있게 무대화시킬 수 있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현순은 미・일간 관계 악화라는 외교적 상황을 파악하고 문화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조국 독립 열망을 표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45년 3월 한인들은 3・1운동을 기념하여 미군을 상대로 현순이 제작에 참여했던 결혼식 각색 연극을 선보였다. 이때 현순은 단순히 공연 자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직접 무대에서 연기를 펼쳤다. 1945년 연기자로의 헌신은 그가 미국 내 진보 진영 한인 독립운동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국민회 계열의 인물들과 더불어 조국 독립이라는

* 노던일리노이대학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정치적 의제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강조한 현실적 기독교사회주의 주창자로서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계속해서 지켜갔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현순, 피터 현, 20세기 초 하와이, 공연, 다문화 행사, 독립운동.

1. 머리말

본 연구는 현순(玄楯, 1878~1968)이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전까지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참여했던 공연 관련 활동을 되짚어본다. 현순은 삼십 년 이상을 당시 미국 영토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사회를 이루었던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북미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1903년 3월 하와이 통역사로 정식 이민한 후에 하와이 카후쿠와 와이알루아 농장에 교회를 설립하였다가 1907년 5월 서울 정동에 위치한 제일감리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3·1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1920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 직을 맡아 일하다가 1921년 해임당한 후 가족이 있는 상해로 돌아갔다. 1923년 초까지 상해에 머물며 가족 생계를 위해 영국 제약회사의 중국시장 판매원으로 취직한 적도 있었다.[1] 상해에 머물던 중 현순은 하와이 감리회 감독 프라이(W. H. Fry)로부터 하와이 목회 요청을 받고 1923년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었다.[2]

현순이 담임 목사직을 맡은 호놀룰루 교회는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오아후섬에 위치한 가장 큰 규모의 한인 감리교회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감리교회를 떠나면서 한인 교회가 분열되었다. 이승만이 감리교로부터 독립된 한인기독교회를 세운 후 독자적 단체인 동지회를 조직함에 따라 한인사회 내 분쟁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신도들이 줄고 재정이 축소된 상황에서 현순이 한인 감리교회 목회직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현순은 3년 후인

1) Peter Hyun, *Man Sei!: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96, p.162.

2) 현순은 1923년 2월 24일 큰딸 엘리스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다. 나머지 가족들은 1924년 5월 25일, 1925년 3월 4일 2차에 걸쳐 하와이에 도착했다.

1926년 미감리회 조선지부로부터 캘리포니아 지부 카우아이 섬에 위치한 리휘교회로 그 소속을 옮겼다. 리휘교회에서 임시정부 재원을 조달하는 임무와 함께 하와이섬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전도사역을 맡았다. 또한 한글 학교를 세워 한인들의 2세 교육을 담당하였다. 1923년부터 오아후와 카우아이섬을 오가며 하와이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한 현순은 1940년 목사직을 은퇴하고 1947년 LA로 이주하였다.[3)]

필자는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들의 공연 활동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순의 이름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이국땅에서 펼친 공연문화 활동의 모습은 어떠한 양상이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공연 무대가 하와이 한인사회에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본 연구는 현순이 두 번째 하와이에 거주하게 되는 시점인 1923년부터 1947년까지 그의 공연 활동을 추적하였다.

현순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이 남긴 자서전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연구자들은 한반도, 중국, 미국 본토, 하와이에서 펼친 독립운동사를 밝혔다.[4)] 목회자이자 후원자, 교육자, 학자로서의 그의 삶을 다룬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5)] 일제강점기 말 호놀룰루에서의 현순의 활동을 다룬 연구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현순의 한인사회 리더 역할과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지부 총서기 역임 등을 상세히 밝힌 최근 연구[6)]들이 눈에

---

3) David Hyun, 『현순목사와 대한독립운동』, 한국독립역사협회, 2002, 95면.

4) 윤대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분화 (1919~1930)」,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 출판부, 200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오영섭, 「상해임정내 이승만 통신원들의 활동」,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연세대 출판부, 2009; 윤대원, 「玄楯에게 '祕傳'된 임시정부의 실체와 대한공화국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희곤 외,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자주독립과 통합 운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9; 고정휴, 『현순—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숨은 주역』, 역사공간, 2016.

5) 한규무, 「玄楯(1878~1968)의 인물과 활동」, 『국사관논총』 40,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한규무, 「현순의 기독교 신앙과 독립운동」, 『믿음, 그리고 겨레사랑』, 2000; 한규무, 「玄楯의 신앙과 활동—3·1운동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2; 박대성, 「현순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5.

6) Robert Hyung-Chan Kim, "Soon Hyun and His Plac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cta Koreana*, Vol.12, No.2, 2009; Robert Kim, "Soon

뛴다. 그러나 현순의 연극 작품 집필 및 공연 참여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국내·외 문학작품을 추적한 김욱동의 최근 연구에서 현순의 『포와 유람기』, 시, 독립선언서 번역물과 함께 극작가의 면모를 짧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7]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현순과 그의 가족, 특히 북미지역 공연계에서 활약을 펼친 바 있는 아들 피터 현의 공연 활동을 태평양 전쟁 전후로 나뉘어 고찰한다. 아래 본문을 통해 현순이 1920년대부터 정착된 호놀룰루 내 다문화 환경과 1940년대 초 미·일간 관계 악화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라는 매개체를 민족의 자긍심 고취와 조국 독립 열망 표출의 도구로 인지하였음을 밝힐 것이다. 본 연구가 현순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 디아스포라 한인 공연문화사 이해를 확장 시키기를 기대한다.

2.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

1) 극작가로서의 현순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소장의 제12번 현순 컬렉션에는 시와 연극[Manuscript(3): Poems and Plays]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하와이 무대에 올려진 연극 작품은 〈오월단오(O Worl Dan O)〉, 〈결혼식(A Korean Girl's Cycle of Joy)〉, 〈꿈의 환타지(Dream Fantasy)〉 총 3편이다.[8]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무대에 올려진 작품은 〈오월단오〉와 〈결혼식〉으로 모두 1928년 호놀룰루 YWCA 산하기관 내에 설립된 한인 문화 단체 형제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Vol.15, No.1, 2012; 박순섭, 「1920~40년대 玄楯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7) Wook-Dong Kim, *Global Perspectives on Korean Literature*,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019, pp.101-123.

8) 〈오월단오〉의 원제는 O Worl Dan O로 번역된 제목인 Korean Spring Festival이 부제로 소개되기도 하였고, 〈결혼식〉의 극본상에 기록된 제목은 "A Korean Girl's Cycle of Joy"로 공연의 소책자에서는 "Honin-Yaybi"이란 제목으로 "Wedding Ceremonials of Korea"라는 부제가 덧붙여서 기록되기도 하였다. 본문에서는 1940년대 초까지 〈결혼식〉 무대로 소개되기 때문에 후자의 작품을 편의상 〈결혼식〉으로 표기한다.

클럽 회원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이었다. 페기최(Peggy Myo-Young Choy)와 최희영은 대본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클럽 설립자인 황혜수가 두 작품의 영어 각색에 참여했다고 설명하였다.[9] 한편 김욱동은 현순의 『포와 유람기』, 한자 혹은 영어로 집필한 시, 이광수와 함께 영어로 번역한 독립선언서를 소개하며 한국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문학의 초석을 쌓은 극 작품으로 '현순'의 〈오월단오〉를 소개하고 있어 본 연구와의 연계성을 보여준다.[10]

사실상 〈오월단오〉와 〈결혼식〉은 단독 작품이 아닌 인터미션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형식으로 무대에 세워진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널뛰기, 그네 등의 민속놀이를 보여주고 해설자가 나와서 설명해주는 장면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의 전통 악기 연주나 연주를 동반한 노래와 춤이 연극 중간에 등장한다. 또 다른 공통점은 영어로 연기하도록 제작되어 비한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다문화 행사에 선보여졌다는 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Honolulu Academy of Arts, 하단 '호놀룰루 아카데미'로 약칭)[11]는 창립 바로 다음 해인 1928년부터 매년마다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국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12] 한국의 봄축제(Spring Festival)로 소개된 이 지역 행사는 단오를 기념하는 자리로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으며 천여 명의 관객이 초청된 대규모 연례행사였다.[13] 〈오월단오〉와 〈결혼식〉은 이 행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개된 극 작품이었다.

〈오월단오〉는 〈결혼식〉과는 달리 황혜수가 집필했다는 기록이 대본이나 소책자에 남겨져 있지 않아 출처를 알기 어렵다. 다만 김욱동은 현순의 〈오월단오〉 각색 참여를 주장하며 현순의 한국 풍속 및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결혼식〉 연극 작가로 기록된 황혜수와의 친밀한 관계, 현순이 연변과 만주에

9) Peggy Myo-Young Choy, "Anatomy of a Dancer: Place, Lineage and Liberation", *Amerasia Journal*, Vol.26, No.2, 2000, p.241; 최희영, 「정착형 식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와이 한인사회의 첫 영어 연극 분석」,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a, 101면.
10) Wook-Dong Kim, Op. cit, 2019, pp.101-123.
11) 오늘날의 '호놀룰루 뮤지엄 오브 아트'이다.
12) "Korean Pageant To Be Featured", *Honolulu Star-Bulletin*, May 2, 1936.
13) "75 Korean girls to present programs at Academy Saturday", *Honolulu Star-Bulletin*, May 16, 1934.

머물고 있을 당시 한자로 쓴 연극 작품, 현순 집필로 알려진 「결혼식에 관한 짧은 설명」, 「단오」, 「한국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사설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14] 이 세 종의 사설은 남가주대학 현순 컬렉션 제10호에 수록된 자료로 김욱동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오월단오〉나 〈결혼식〉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누군가는 전통 혼례를 정리한 것이기에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순의 사설과 공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이 상당히 유사하기에 둘 사이에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순이 1930년 2월 7일 남긴 「결혼식에 관한 짧은 설명」은 황혜수 각색으로 기록된 〈결혼식〉 연극 제4막 중간 해설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표 1〉 참조).

〈표 1〉 결혼식 관련 사설과 극본 비교

「결혼식에 대한 짧은 설명」	〈결혼식〉 제4막 중간 해설
(한국의) 결혼식은 신부집 뜰에서 열린다. 풍성하고 거대하게 차려진 상이 준비된 연회장 즉 좌석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한국의 색인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이 펼쳐져 있다. 하인이 혼인의 행복을 상징하는 백조 혹은 거위를 가져고 와서 상 옆의 해가 비추는 방향에 놓는다. 신랑이 보조원과 2명의 하인과 함께 나와 백조에게 2번 반 절을 한 후, 초롱불을 들은 2명의 사람과 함께 신부가 2명의 보조자들과 함께 등장하여 신랑 건너편에 선다. 두명에서 세명의 신부측 친구들이 신부들과 함께 따라 나온다. 신부는 신랑에게 3번 절하고 신랑은 그녀에게 2번 반 절을 한다. 신랑에게 술이 전해지자 신랑은 조금 마신 후 신부에게 나머지를 주는 방식으로 세 번 반복한다. (이하 생략)	결혼식 거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어린 영문(주인공)의 집에, 결혼식 색깔인 붉은 드레스를 입은 영문이 눈을 가리고 양 손을 맞잡은 채로 나와서 신랑의 차례를 기다린다. 쉿 – 결혼식 행렬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세요? (징이 울리고 조명이 무대에 켜진다.) (행렬 지시문 생략) 신랑이 상 오른쪽에 신부가 상 왼쪽에 서 있는데, 하인이 홍청으로 된 실을 두 사람 사이에 놓는다. 신부는 3번 절하고 신랑은 2번 절하여 답례한다. 하인이 술을 신랑에게 주자 그는 조금 마시고 같은 잔을 신부 보조인을 통해 신부에게 건네주는데 이를 세 번 반복한다. 이제 신부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팔선녀의 춤(Pal Sun Nay)이 이어진다. (이하 생략)

김욱동은 현순의 사설이 〈오월단오〉나 〈결혼식〉 각색본 발간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추론된다. 결

14) Wook-Dong Kim, Op. cit, 2019, pp.114-116.

혼식 재연을 동반한 한인 연극이 이미 1928년 YWCA 강당에서 선보여졌기 때문이다.[15]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설들이 현순이 집필한 글이 확실하다면 황혜수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쓰였거나 혹은 황혜수가 집필한 극본을 후에 다시 각색하거나 소책자에 소개하는 작업에서 현순의 손길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호놀룰루 미술관 아카이브 소장 연극 대본이 위에서 소개한 현순 컬렉션에 있는 사설 내용과 미세하게나마 표현법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놀룰루 미술관 소장 대본에서는 각 연기자의 대사를 해설자가 대신하여 전달하거나 설명으로 대신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 데에 반해, 현순 컬렉션에 기록된 대본은 직접 배우가 대사를 읊는 형태로 지시되어 있다.[16] 황혜수의 결혼식 극본과 현순의 사설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명료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했던 공연물 제작에 현순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다.

2) 아들 피터 현의 공연 활동지지

현순의 예술적 피를 물려받아 전문적으로 공연 예술에 몸담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현순의 첫째 아들 피터 현(Peter Hyun, 1906~1993)이다.[17] 피터 현은 1919년 3·1운동 직전의 서울 생활과 상해 망명 생활에 관한 자전적 이야기를 엮은 『만세(*Man Sei!*)』[18]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1906년 하와

15)"Korean Girls Club to Present Play Depicting Home Life, Jan. 14", *The Honolulu Advertiser*, January 8, 1928.

16) 최희영, 앞의 글, 2021a, 110면.

17) 현순의 문학적 소질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순의 가문인 천녕 현씨(川寧玄氏)는 조선시대 잡과에서 이름을 날렸고 당상관에 진출하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사무역 열기가 사그라지던 1718년 이후 사행에 자주 참여하여 많은 당상 역관을 배출하였으며 대일 외교에 참여하여 무역의 주도권을 지니는 중요한 임무를 도맡았다. 현순 가문 중에는 뛰어난 시재와 문장력, 기행으로 당시 명성을 떨친 여항시인 현기(玄錡, 1809~1860)도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김량수, 「조선전환기의 中人집안활동—玄德潤 玄采 玄楯 등 川寧玄氏 譯官家系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0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8, 185-272면 참조.

이에서 태어났으나 곧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랐다.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해에 그는 가족과 함께 상해로 도피했다. 다른 애국자들과 함께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한 아버지 현순 목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피터 현이 열일곱 살 되던 해에 가족은 다시 하와이로 이주했고, 그는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하여 카우아이고등학교(Kauai High School)를 졸업했다. 인디애나 드포대학(DePauw University)에서 철학과 무대예술 전공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미국 연극계에 뛰어들었다.

피터 현은 뉴욕의 시민 레퍼토리 극장(Civic Repertory Theater) 매니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스튜디오 플레이어스(Studio Players)' 조직 및 감독, 뉴욕의 연방 극장 프로젝트(Federal Theater Project) 중 하나인 어린이를 위한 극 작품 감독 등을 맡았다. 1934년부터는 뉴욕 내 급진적 성향의 노동연극 연출에 참여하면서 미주 내 진보적 예술 운동에 합류했다. 나아가 중국의 항일세력을 후원하기 위해서 1937년 9월 뉴욕 거주 한인들이 창설한 뉴욕 한인연합 중국후원회 총무로 일했다. 1938년 8월에 열린 세계청년대회에 한인 대표로 출연하는 등 미주 본토 내 새로운 한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937년 피터 현은 브로드웨이에서 이름을 떨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인도 아닌 "중국인"이 감독을 맡은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완강한 뜻을 내비친 배우들 때문에 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인종 차별적인 본토의 분위기에 실망하고 다시는 연극계에 발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19]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본토를 떠나 다시 가족이 있는 하와이로 돌아와 연극 감독을 맡은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터 현은 1940년 5월 22일 호놀룰루 아카데미 무대에서 올려진 〈노래하는 혹(The Singing Wen)〉 감독을 맡았다.[20] 〈노래하는 혹〉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영어로 각색한 이는 리차드 전(Richard Sooki Chun, 1920~2012)

18) 본 논문에서 서술한 피터 현의 하와이 정착 이전 활동은 피터 현의 자서전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9) Guiyou Huang, *Asian American Autobiographers: A Bio-bibliographical Critical Sourcebook*, Westport: Greenwood Press, 2001, pp.135-136.
20) "Korean Festival To Be Presented", *The Honolulu Advertiser*, May 8, 1940.

이었다. 한인 노동자와 사진 신부로 이주한 한인 1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리차드 전은 〈노래하는 혹〉 각색본을 완성할 당시 맥킨리 고등학교(McKinley High School)을 다니고 있었고 교내 연극반에 등록되어 있었다. 연극반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던 펀 맥케스턴(Fern McQuestern, 1900~1984)은 다민족 배경의 학생들에게 그들만의 민족적 문화를 보여주는 글을 쓸 것을 권했다. 이러한 지도에 따라 리차드 수기 전은 한국의 설화 중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영어로 각색한 극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 대중화되어 있던 도깨비가 등장하는 일본판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결혼식, 음식, 종교, 언어, 옷차림, 거주환경, 전통 음악과 춤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요소 보여주기에 주력한 작품이었다.[21]

〈노래하는 혹〉 공연 책자에도 강조되었듯이 피터 현은 연극계에서 전문적 교육과 다수의 공연 경험을 쌓은 전문가였다. 그가 본토에서 인종 차별적 대우를 받아 낙심하고 하와이에 돌아왔을 때 자연스레 한민족을 대표하는 공연물 감독의 의뢰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노래하는 혹〉은 이후 YWCA의 대강당에서도 재연될 만큼 대중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대중의 호응은 공연 주최 측이 1940년 5월 25일 피터 현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매년 우리는 한국인의 다채로운 설화, 춤, 노래, 풍습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국의 삶을 예술적 해석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피터 현님께서 본 공연을 감독해 주셨기에 아주 운이 좋았다고 여겨집니다. 연극계에서의 감독님의 재능은 우리 한인사회에 귀한 자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귀하의 시간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2]

---

21) 최희영, 「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사회의 「혹부리 영감」 각색공연 고찰」, 『한국학』 4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b, 34-35면.

22) 'Korean program', Box 8, Folder 20, Honolulu Museum of Art Archives 발췌.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year we try to present an artistic interpretation of Korean life in an effort to preserve the colorful legends, dances, songs and customs of the people. We were extremely fortunate this year in having you with us to direct the performance. Your talent in this field is a great asset to our community and I want to thank you for giving so generously your time and efforts to our program.

그뿐만 아니라 피터 현은 YMCA에서 연극 수업을 운영했다. 1940년 5월 15일부터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연극 분석, 극본 연습, 연기에 필요한 기본 숙련, 이론과 실기, 테크닉 등을 가르쳤다. 이 수업을 지원한 이는 YMCA 단체, 그리고 대부분 YMCA와 연계를 맺고 있는 하와이 지역 내 백인 유지들이었다. 피터 현의 수업은 하와이 지역에서는 처음 제공된 것이었기에 큰 관심을 받았다. 수업 안내문은 강사 피터 현이 본토 연극계에서 11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고 수많은 감독 경험을 지닌 대단한 실력자이며 캐나다 몬트리올의 극장 감독을 맡다가 사임한 이력까지 상세하게 서술하였다.[23]

현순은 이러한 피터 현의 공연 활동을 지지했다. 현순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이민 오기 전 피터 현은 연극 공연에 선 경험이 있었다. 상해에 거주할 때 아버지 현순의 교회에서 경찰 역을 맡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다양한 공연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에서도 공연 관련 전공을 택하여 연마하고 단기간이나마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24]

어떠한 연유로 현순은 각색에 참여하고 아들 피터 현의 공연 활동 또한 지지하였을까? 먼저 급진적 미국화만을 주장하는 논리와 노선을 달리했던 현순의 보수주의적 시각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서양문명을 향한 냉소적 시각은 당시 팽배해있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현순은 「우리의 생명관은 무엇일까?」라는 글을 통해 당시 한인사회가 물질을 중시하여 비단 저고리, 다이아몬드 반지, 비싼 자동차 등에 탐닉함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서구인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미신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물질만능주의가 미신과 같이 되어 버린 상황이 큰 비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순의 인식은 미국주의의 핵심인 실용성과 경제적 능력을 강조하던 당시 주류 한인사회의 의견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5]

---

23) "Peter Hyun to Offer Classes in Dramatics", *Honolulu Star-Bulletin*, May 1, 1940.
24) Pat Padua, "Asian American Spotlight : Korean American Director Peter Hyun", *Library of Congress Blogs*, https://blogs.loc.gov/music/2021/05/asian-american-spotlight-korean-american-director-peter-hyun/ (2023.5.15. 검색)
25) 현순, 「우리의 생명관은 무엇일까」, *The Young Korea*, No. 38, 1924.5.17.(이현희, 「강영

현순은 더욱 보수적인 시각에서 당대 한인사회의 풍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조국을 사모하는 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해당 글에서 현순은 '단군 한배님의 피를 가진 한족'이 "옛날 유대사람의 국권 회복하는 일을 본받자"라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이 민족적 순수성을 보존하기를 권고하였다.[26] 나아가 한민족의 피 즉 혈통에는 다른 민족이 지니지 못한 선천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호개방주의를 취하여 잡혼을 허락하면 (…) 한쪽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 버릴 수 있으므로 나라를 회복하는 힘까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다른 민족 배경의 배우자를 들이는 일을 반대했다. 물론 그는 결론 부분에서 '조국을 사모하는 정'이 서로의 상처를 용서하고 절대적으로 단결을 추구하는 곳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논조보다도 더욱 중요시하여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한민족 순수성의 보존이었다.[27]

현순의 공연을 향한 관심과 지지는 기독교민족주의 요소 중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다.[28] 현순의 기독교민족주의적 요소는 여러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현순은 사역과는 별개의 글을 많이 남겼는데 대부분 한국 역사, 전통, 자연, 문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전통 혼례에 관련된 글도 그중 하나였다. 더불어 황혜수를 포함한 같은 감리교 교인이 많이 소속되어 있던 형제클럽과의 교류 속에서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힘쓰며 다시금 민족 정체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29]

물론 현순의 공연 활동은 당시 하와이 한인 1세들의 민족 문화 보존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엘리트 한인 여성의 전통문화 보존 작업에 주목한

각의 언론활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현실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29-30면 재인용).

26) 현순, 「조국을 사모하는 정」, The Young Korea, No.34, 1924.3.8.(이현희, 앞의 글, 2020, 30면 재인용).

27) 이현희, 앞의 글, 2020, 30면.

28) 이에 관하여는 박대성, 앞의 글, 2005, 114-116면 참조.

29) 황혜수의 감리교인으로서의 사역에 관하여는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53. 황혜수(1892-1984)」, 『미주크리스천신문』, 2022.9.3., https://www.chpress.net/column-detail.html?cate=column&c_id=115&id=20075(2023.8.24.검색) 참조.

최희영의 연구[30]는 이러한 공연 매체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 지녔던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다. 낯선 곳에 살면서 한인 1세들은 민족 정체성 보존을 더욱 절실히 갈망했고 문화 활동을 한인, 특히 어린 세대들을 위한 계몽 활동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현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는 하와이 정착 전부터 전통문화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관련 글을 영문으로 남기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한인 공연 제작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당시 하와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면 왜 현순을 포함한 한인 1세들이 그토록 민족 문화를 강조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호놀룰루 지역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더불어 1910년 후반부터 시작된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공간이었다.[31] '하울리(haole)'라고 불리던 백인 정착민의 아시아계 이민 사회를 향한 인종차별이 수그러들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930년대 중반까지 인종 간 이해, 조화와 협력이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다.[32] 그 실례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다문화 행사들과 함께 각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조직들이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형제 클럽과 이민계 거주자들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도모한 호놀룰루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이 그 예시이다.

한편 20세기 초 한반도는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던 시기였다. 대한제국은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과 함께 자유국가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 본국의 국적을 상실한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지역 다문화 행사는 한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알리는 자리였기에 그 의미가 좀 더 특별했다. 그들은 공연무대를 "조선의 자랑", "민족의 자랑거리", 그리고 "조선과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지했다.[33] 민족 정체성을

30) Heeyoung Choi, "Curating Koreanness: Musical Activities of Korean Elite Women in Hawai'i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Women and Music*, Vol.25, 2021, pp.110-127.
31) Wayne Patterson,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p.68-79.
32) Michael Haas, *Institutional Racism: The Case of Hawaii*, Westport: Praeger, 1992, p.59; Brandon Palmer,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189면.

보존하고 독자적 문화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목적에 상응하도록 음식, 민속놀이, 전통 음악, 춤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여 한국의 전통 중매결혼 과정을 각색한 공연물이 바로 결혼식 재연연극이었으며 〈노래하는 혹〉은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공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던 현순은 공연 활동에 관심을 지니고 각색에 참여하며 피터 현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었다.

3.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미 해군 태평양함대 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문화 행사들은 중단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와이에 돌아온 후 다양한 공연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던 현순의 장남 피터 현 또한 태평양 극단 소속 미군 통역관으로 복무하느라 하와이를 떠난 상태였다.[34] 그러나 현순이 제작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전통결혼식 재연연극은 전쟁 기간에도 계속해서 무대화되었으며 이때 현순은 직접 연기자로 무대에 오르기까지 했다. 1945년 3월 4일과 18일에 선보여진 결혼식 재연연극이 그 예이다.

1945년 3월 4일 미연합봉사기구(United Service Organizations, USO) 빅토리클럽(Victory Club)에서 결혼식 재연연극이 5,000명이 넘는 미군을 대상으로 선보여졌다. 이 행사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함께 제공되었으며 해당 연극에 관하여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가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35] 결혼식 재연연극은 4일간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3월 1일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 이하 '연합회'로 약칭) 주최로 국민회관에서 3·1절을 경축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36] 연합회는

33) 최희영, 앞의 글, 2021a, 209면; 최희영, 「하와이 한인 2세의 연극 공연과 역사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346면.
34) Guiyou Huang, Op. cit, 2001, p.136.
35) "Gala Program by Koreans at Victory USO Sunday; Costumed Entertainmnt", *Honolulu Star-Bulletin*, March 1, 1945; "Korean Festival At Academy", *Honolulu Star-Bulletin*, March 16, 1945.

1941년 4월 국민회 등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창단한 재미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로 당시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많은 이들이 경축 행사에 참여하였다. 3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부인구제회(婦人救濟會)에서 각 부인회가 연합하여 전시공채를 발매했다.[37]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연에서 현순이 아버지 역을 맡아 연기하였음을 3월 4일 기사에 삽입된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8]


KOREAN FAMILY GROUP—Depicting a typical Korean family is the above group which will take part in a wedding ceremony today in one of the featured pageants at the USO Victory club for the entertainment of servicemen. From left to right, Sharon Kim, Arthur Dunn, Alice Yu, Elizabeth Ahn (bride), Kwan Hi Lim (groom), Mrs. Dan Dunn (mother), Rev. Soon Hyun (father).

〈사진 1〉 1945년 결혼식 재연연극 출연진

현순이 연기자로 선 결혼식 재연 무대는 이전 한인 축제에서 선보인 공연의 목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지역 다문화 행사에서 사교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3·1절 기념 행사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례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장작 9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혼례식, 고물진열, 각종무도, 음식대접, 공채발매 등의 순으로 행해졌으며 이 모든 절차가 연극 형식으로 선보여졌다.[39] 무엇보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음식과 공연으로 미군들을 크게 위로하고 위안하기 위한 행사의 정치적 목적을 강조하였다.[40]

---

36) 「3·1절 경축행사와 공채발매」, 『국민보』, 1945.2.21.
37) 「3·1절 경축행사와 공채발매」, 『국민보』, 1945.2.21.
38) "Korean Family Group", *The Honolulu Advertiser,* March 4, 1945.
39) 「3·1절 경축행사와 공채발매」, 『국민보』, 1945.2.21.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미국에서 공부한 뒤 아버지를 이어 배재학당에 교장으로 취임해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한 바 있던 헨리 D. 아펜젤러(Henry D. Appenzeller, 1858~1902) 목사가 이 공연을 소개하였다.[41] 그는 카이로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한인사회 분위기를 한인사회 주도의 공연 배경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해당 소개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독립을 옹호하는 카이로회담 선언과 더불어 오늘 자유의 불꽃은 더욱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와이와 본토의 한인들은 빅토리 클럽에서 전일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우리[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한국의 독립운동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300명 이상의 한국 혈통의 청년들이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불로 불을 싸우고 식민 통치 아래 있는 한국인들과 그 외에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평화를 구하는 호소로 하늘을 향해 빈손을 들었으나 일본인들은 잔인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인 아들들은 일본의 폭군 군국주의를 근절하고 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 해방의 군단에 합류합니다.[42]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태평양 전쟁 이후 정세가 미국 측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었다. 1945년 공연은 미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미군을 지지한다는

---

40) "Gala Program by Koreans at Victory USO Sunday; Costumed Entertainmnt", *Honolulu Star-Bulletin*, March 1, 1945.

41) 당시 아펜젤러는 1920년부터 20년간 배재학교 교장으로 헌신하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하였고 이후 하와이호놀룰루제일교회를 담임하여 한인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는 최청순, 「헨리 닷지 아펜젤러의 생애와 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22, 227-258면 참조.

42) "Honolulu Minister Recounts Details of Independence Move", *The Honolulu Advertiser*, March 4, 1945. 저자 번역.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day, with the pronouncement at the Cairo Conference in favor of Korea's independence, the flame of liberty burns brighter. Today, the Koreans of Hawaii and elsewhere are celebrating Korea's independence Day—life our Fourth of July—wit an all-day program at the USO Victory Club. Today more than 300 of Korean ancestry are serving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fight fire with fire, to carry the torch of freedom to the enslaved and waiting ones in Korea. Their[Koreans'] fathers lifted empty hands to heaven in peaceful appeal and they[Japanese] were answered with brutality. Today their sons join the armed of liberation to extirpate the tyrant militarism of Japan and set the people of Korea free.

표명으로 펼쳐진 행사였다. 이렇듯 한반도 독립을 향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시기에 현순이 연기자로까지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2주 후인 18일 같은 공연이 호놀룰루 아카데미에서 무대화되었다. 이는 전쟁 시기에 중단되었던 한인 봄축제를 다시금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다채로운 색감의 한국 전통의상이 선보여진 이 봄축제가 해마다 시행되어 오던 행사였음을 밝히며 이 공연에 관하여 안원규의 부인 안정송과 함께 현순이 결혼식 재연연극에 고문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43] 이전 한인 봄축제 공연은 대부분 5, 6월에 열렸었다. 1945년에 유독 3월에 축제를 개최한 이유는 3·1절 기념 행사였던 4일 행사가 큰 관심을 받아 이를 이어가고자 한 목적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본 행사를 기록한 신문 기사를 통해 특히 한인 1세들이 결혼식 재연 연극에 삽입된 춤과 노래를 지도하고 연행하는 데에 열성적으로 노력을 쏟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44] 아펜젤러 목사의 서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인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기대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다. 1945년 3월에만 두 번 연속으로 무대화된 결혼식 각색 공연은 독립국가를 향한 염원과 기대감을 품은 한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1945년 현순이 연기자로 참여한 3·1절 기념행사는 태평양전쟁 이전에도 하와이 한인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사로 엄숙하게 개최되어 오고 있었다. 1920~30년대 하와이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의 양상을 조사한 이현희의 연구에 의하면 제일 처음 보도된 3·1운동 기념행사는 1923년 열렸던 기념식이었다.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는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때 특히 강조된 프로그램은 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법 낭독이었다. 1924년 행해진 기념식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다.[45]

그러나 3·1운동을 기념하여 현순을 포함한 한인이 일심동체가 되어 미군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선보인 예는 1945년 3월 4일의 사례가 유일했다. 9시간이라는 긴 프로그램만큼이나 많은 한인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주최

43) "Korean Festival", *The Honolulu Advertiser*, March 12, 1945.
44) "Art News", *The Honolulu Advertiser*, March 18, 1945; "Korean Festival At Academy", *Honolulu Star-Bulletin*, March 16, 1945.
45) 이현희, 앞의 글, 2020, 44면.

측은 연이은 『국민보』 기사를 통해 한인들이 본 행사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공연에 참여하며 연극을 안내할 청년 여자가 300명에서 500명 필요하므로 이에 응해 주기를 요청했다.[46] 초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2월 16일 민병대 사령부 집회실에서 무도회를 열어 입장료를 매수하고 공채를 발매하였는데 다행히 상당한 금전을 모금할 수 있었다.[47]

이러한 이례적 규모와 행사 준비 과정은 태평양 전쟁 이전에 공연물이 주로 민족 문화 보존과 소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었음을 예증한다. 즉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개입 이후 한민족의 민족 문화를 담아낸 공연물은 하와이 지역 다문화 환경에 일조라는 문화 활동을 넘어서 독립된 문화를 지닌 한민족의 존재와 함께 미군 승리의 지지를 표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현순이 연기자로까지 공연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현순이 호놀룰루에 거주하며 정치적 입지를 크게 다져나갔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순은 1937년 10년 넘게 주요 활동 근거지로 삼아 임시정부 후원을 담당하고 있던 카우아이섬 리후 하와이 감리교 중앙교단 측과의 갈등을 빚은 후 호놀룰루로 이주하였다.[48] 1946년 LA로 이주하기 전까지 그는 호놀룰루를 주요 거점지로 삼고 중한민중동맹단, 조선민족혁명당, 연합회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해방 직전인 1944년 현순과 그의 한인 1세대 동료들인 문도라, 민찬호, 박상하, 홍치범, 홍한식 등은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다.[49] 이들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미주 본토 거주 진보 진영 독립운동가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중한민중동맹단,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지부,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로 대표되는 진보적 흐름이 미주 내에 형성되었다.[50]

---

46) 「한인 여자 형제부락부」, 『국민보』, 1945.1.17.; 「형제회의 한국전통흔례극」, 『국민보』, 1945.1.24.; 「형제회의 미육・해 군인을 위한 한국 연극공연」, 『국민보』, 1945.1.24.; 「형제회 주최 전통흔례극 경비마련을 위한 무도회 개최」, 『국민보』, 1945.2.14.; 「한인여자형제구락부의 연극공연」, 『국민보』, 1945.2.17.; 「군인위한 조선연극 재정으로 도우시오」, 『국민보』, 1945.2.21.

47) 「3・1절에 미 육・해군 초대경비 모금」, 『국민보』, 1945.2.21.

48) 박순섭, 앞의 글, 2016, 21면.

49) 같은 글, 31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현순의 정치적 활동 반경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하와이 한인사회 내 영향력이 커진 점은 미군 정보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수사국 간부 모임에서 호놀룰루의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한인 좌익 그룹의 실질적 리더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던 이경선과 함께 현순을 지목한 기록이 있다.[51] 현순이 미국 내 진보 진영 한인 독립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진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3·1절 기념 행사에 깊이 개입한 결과의 한 면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연합회 행사가 국민회 계열 인물들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42년 2월 한길수 중심의 중한민중동맹단이, 1943년 12월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가 각각 연합회를 탈퇴하면서 이후 연합회는 사실상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단독으로 운영되었다.[52] 더구나 조선민족혁명당하와이총지부가 1943년 결성된 이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와 함께 연합회에 소속되었으나 1944년 4월 워싱턴사무소 설치 강행에 반대하여 상당수가 탈퇴한 상황이었다.[53] 따라서 대부분의 하와이 한인 행사를 주도하고 있던 연합회는 국민회 계열 인물들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1945년 3·1운동 기념행사에도 적용되었다.[54]

현순은 조선민족혁명당 회원으로서 연합회를 떠나지 않은 '참여파'의 주요 인물로서 연합회와 공동행동에 나섰다. 1945년 3·1운동 기념행사는 그 증거 중 하나였다. 그는 급진적 진보 성향을 지닌 동료들이나 자식들과 달리 기독교사회주의의 이론적, 경제적 측면까지 수용하기보다는 한반도 독립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 측면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사상 및 활동의 노선에 공존시키고자 했다.[55]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계급의식을 벗어나

50) 같은 글, 32면.
51) 같은 글, 31면.
52) 이에 관하여는 정병준, 「1940년대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노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10-146면 참조.
53) 이에 관하여는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화평사, 1991 참조.
54) 18일 공연에서 현순과 함께 공연 고문을 맡은 안정송 또한 국민회 계열로 그의 남편 안원규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대표였다.
55) 박순섭, 앞의 글, 2016, 23-24면.

조국 해방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적, 국제적 의제를 강조했다.[56] 요컨대 현순의 1945년 3·1운동 기념행사 참여는 국민회 계열 인물들과 더불어 당시 시급한 정치적 의제에 집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현순의 '현실적' 기독교사회주의는 그가 강조한 '민중(the masses)'의 참여와 연결되는 것이었다.[57] 그는 1944년부터 1945년 한국의 광복 전까지 『독립』 게재 글을 통해 일반 대중이 한반도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기를 촉구했다. 가령 "조선은 일개 단체, 양반 등이 아닌 민중의 것"이며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통해 국내 민중까지 모두 일어나 自由戰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주장하였다.[58] 그런가 하면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을 위해 정치적 혁명을 목적으로 둔 모든 단체는 혁명운동 단체이다"라고 주장하였다.[59] 그는 정치적 흐름을 인지하고 정치적 의제로 쓰이고 있던 공연 활동에 한인들이 남녀노소, 예술적 전문성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호소하며 직접 연기자로 나섰다. 이는 그가 민중의 참여로 한반도 독립을 이루어내는 일에 본보기 역할을 하고자 힘쓴 증거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순의 민족 문화를 향한 관심과 자부심은 진보적 정치 행보를 보인 전쟁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해방 직전에 쓴 또 다른 『독립』 게재 글에서도 그의 민족 문화를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조션국혼의 불멸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립되는 날에는 왜놈들의 사당을 모조리 부수고 단군 사당을 세웁시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60]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순에게 있어 단군은 그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였다. 이처럼 현순이 한국 역사와 전통에 관심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민족 정체성 확립에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중을 이루는 각 개인은 '국혼'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위에 비로소 독립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61]

---

56) 같은 글, 25면.
57) Robert Kim, Op. cit., 2012, pp.181-185.
58) 현순, 「조선은 오직 조선 민중의 것」, 『독립』, 1944.5.17.
59) 현순, 「혁명」, 『독립』, 1944.6.28.
60) 박대성, 앞의 글, 2005, 115면 재인용.

요컨대 1945년 현순의 연기자로서의 헌신을 통해 그가 당시 미국 내 진보 진영 한인 독립운동가로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국민회 계열의 인물들과 더불어 한반도 독립이라는 정치적 의제에 집중하며, 민족 전통문화를 향한 관심과 자부심을 계속해서 지켜갔음을 엿볼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현순이 하와이에 거주할 동안 참여했던 그의 공연 활동을 태평양 전쟁 전후로 나뉘어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 전쟁 이전 현순은 1920년대부터 정착된 호놀룰루 다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한민족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공연을 제작하는 데에 기여하고 그의 아들 피터 현의 감독 활동을 지지했다. 특히 현순이 각색 작업에 참여한 결혼식 영어 각색 연극은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한민족을 대표하여 무대에 올려진 공연물이었다. 혹부리영감 설화를 영어로 각색한 작품 역시 결혼식 각색 연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국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으로 연극계 전문가인 현순의 장남, 피터 현이 감독으로 참여하였기에 완성도 있게 무대화시킬 수 있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현순은 미・일간 관계 악화라는 외교적 상황을 파악하고 문화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조국 독립 열망을 표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1945년 카이로회담으로 대한독립이 가까워진 것처럼 국제 정세가 흘러가면서 한인들은 3・1운동을 기념하여 미군을 상대로 현순이 제작에 참여했던 결혼식 각색 연극을 선보였다. 이때 현순은 단순히 공연 자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직접 무대에서 연기를 펼쳤다. 당시 공연이라는 문화 매개체가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었다. 이를 인지한 현순의 1945년 연기자로의 헌신은 그가 미국 내 진보 진영 한인 독립운동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국민회 계열의 인물들과 더불어 조국 독립이라는 정치적 의제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강조한 현실적 기독교사회주의 주창자로서

61) 같은 글, 115쪽.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계속해서 지켜갔음을 보여준다.

태평양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현순의 공연 활동 양상은 공연무대가 관객과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목적과 의미를 지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예증한다. 때로는 공연 매체가 그 내용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령 태평양 전쟁 이전 현순이 각색에 참여한 전통결혼식 재연연극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무대화되었다. 그러나 관객, 공연 참여자, 당시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한민족을 대표하던 결혼식 각색 연극이 단순히 한민족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보존하는 문화 자체로의 목적이 아닌 한반도 독립을 이끌 미군 측에 지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목적을 담은 도구로 탈바꿈하였다. 문화가 지니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지한 현순은 태평양 전쟁 전후의 전 과정에서 각색가, 연기자, 자문가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다.

현순은 20세기 초 디아스포라 내 '기독교 민족주의를 실행한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심에 기반을 둔 진보적 민족운동의 전략적, 방법론적 측면을 수용한 인물'로[62] 평가받는 인물이다. 본 연구는 현순의 각색가, 감독인 아들의 지지자, 연기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 그 의미를 되새겨 디아스포라 문화사 이해의 범위를 확장 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현순이 문화적 재현 과정에 얼마만큼 참여하였는지,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그 재현 내용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보다 하와이 한인 및 비한국인 관객들이 현순이 참여한 공연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현순이 시무한 교회에서 무대화된 공연물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는 일은 그의 민족 문화를 향한 관심과 기여를 통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추가 자료 검토 및 분석을 통한 필자의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62) 박순섭, 앞의 글, 2016, 44면.

▮ 참고문헌

1. 자료

『국민보』
『더영코리아(*The Young Korea*)』
『독립』
『호놀룰루 스타 뷰레틴(*Honolulu Star-Bulletin*)』
『호놀룰루 어드버타이저(*The Honolulu Advertiser*)』
'한국 프로그램(Korean program)', Honolulu Museum of Art Archives

2. 단행본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화평사, 1991.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현순—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숨은 주역』, 역사공간, 2016.
김희곤 외,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자주독립과 통합 운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Hyun, David, 『현순목사와 대한독립운동』, 한국독립역사협회, 2002.
Haas, Michael, *Institutional Racism: The Case of Hawaii*, Westport: Praeger, 1992.
Huang, Guiyou, *Asian American Autobiographers: A Bio-bibliographical Critical Sour cebook*, Westport: Greenwood Press, 2001.
Hyun, Peter, *Man Sei!: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ersty of Hawaii Press, 1996.
Kim, Wook-Dong, *Global Perspectives on Korean Literature*,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2019.
Patterson, Wayne,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2000.

3. 논문

김량수, 「조선전환기의 中人집안활동—玄德潤 玄采 玄楯 등 川寧玄氏 譯官家系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0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8.
박대성, 「현순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박순섭, 「1920~40년대 玄楯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오영섭, 「상해임정내 이승만 통신원들의 활동」,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연세대 출판부, 2009.
윤대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분화 (1919~1930)」,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_____, 「玄楯에게 '祕傳'된 임시정부의 실체와 대한공화국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현희, 「강영각의 언론활동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현실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정병준, 「1940년대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노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10-146쪽.
최청순, 「헨리 닷지 아펜젤러의 생애와 활동」, 『한국기독교와역사』 5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최희영, 「정착형 식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와이 한인사회의 첫 영어 연극 분석」,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a.
_____, 「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사회의 「혹부리 영감」 각색공연 고찰」, 『한국학』 4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b.
_____, 「하와이 한인 2세의 연극 공연과 역사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한규무, 「玄楯(1878~1968)의 인물과 활동」, 『국사관논총』 40, 국사편찬위원회, 1992.
_____, 「현순의 기독교 신앙과 독립운동」, 『믿음, 그리고 겨레사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_____, 「玄楯의 신앙과 활동—3·1운동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2.
Palmer, Brandon, 「하와이의 한인과 미국인 간의 관계(1903~19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Choi, Heeyoung, "Curating Koreanness: Musical Activities of Korean Elite Women in Hawai'i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Women and Music*, Vol.25, 2021.
Choy, Peggy Myo-Young, "Anatomy of a Dancer: Place, Lineage and Liberation", *Amerasia Journal*, Vol.26, No.2, 2000.
Kim, Robert Hyung-Chan, "Soon Hyun and His Plac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ommission", *Acta Koreana*, Vol.12, No.2, 2009.
Kim, Robert,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Vol.15, No.1, 2012.

4. 인터넷 자료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53. 황혜수 (1892-1984)」, 『미주크리스천신문』, 2022. 9.3., https://www.chpress.net/column-detail.html?cate=column&c_id=115&id=20075 (2023.8.24. 검색)
Padua, Pat, "Asian American Spotlight: Korean American Director Peter Hyun", *Library of Congress Blogs*, https://blogs.loc.gov/music/2021/05/asian-american-spotlight-korean-american-director-peter-hyun/ (2023.5.15. 검색)

【Abstract】

Soon Hyun's Participation in Performing Arts : Key Activities and Implications

Choi, Hee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related activities of Soon Hyun (1878~1968) before and after the Pacific War in Hawai'i to understand their patterns and implications.

Before the Pacific War, Soon Hyun contributed to the production of performances that inspired Korean pride and supported the directorial work of his son, Peter Hyun. Most remarkably, 〈Wedding Ceremony〉, which Soon Hyun participated in dramatizing in English based on Korea's traditional marriage custom, was the most frequently staged performance representing Korea i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After the Pacific War, Soon Hyun more actively participated in performance-related activities to express his desire for Korean independence. The Koreans in Hawai'i presented the play 〈Wedding Ceremony〉 for the US Army in commemorat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Here, Soon Hyun not only acted as a performance consultant, but also performed on stage. This demonstrates his position as a progressiv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ith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his focus on the political agenda of national independence, along with figures aligned with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In this process, he emphasized public participation and continued to uphold a love for and pride in the national traditional culture, serving as a pragmatic advocate of Christian socialism.

Keywords: Soon Hyun, Peter Hyun, Early twentieth-century Hawai'i, stage performance, multicultural event, independence movement.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

* Visiting Scholar, Dept. of History, Northern Illinois Univ.